

성악 중등부/초등부 1·2, 5·6학년 홍 승 연 광주교육대 교수

호흡·발성·발음…초등 저학년 수준높은 기량

예년처럼 올해 대회에서도 초등부 저학년과 고학년 성악 참가자들은 수준 높은 기량을 뽐냈다. 학령에 비해 어려운 곡들임에도 좋은 호흡과 발성, 정확한 발음으로 곡을 잘 표현했다. 다만 일부 참가자는 자신의 소리나 음역에 어울리지 않는 곡들을 다소 거친 소리, 공명이 되지 않은 소리로 표현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중등부 성악 일부 참가자는 정확한 소리의 위치와 바른 호흡으로 좋은 음질을 유지했으며 곡 해석도 탁월했다. 반면, 변성기로 인해 불안정한 성대의 진동과 호흡 지지의 불균형으로 균일한 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던 참가자들이 의외로 많아 안타까웠다. 이 시기 동안에는 무리하게 노래하는 것을 삼가고 가벼운 곡들을 위주로 연습해야 한다. 또한 이태리 가곡을 노래할 때 발음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신의 표현력과 정중과의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곡을 선곡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악 임 봉 순 삼육대 교수

음정·표현법 세밀하게 연주하는 게 중요

경이롭고 기적 같은 음악의 산실, 66번째 호남예술제에 함께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고 자부심이 들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년보다 참가자가 많다는 고무적인 예기는 작금의 상황에서 큰 희망으로 느껴졌다.



저학년들의 경우 본인의 수준에 비해 어려운 곡을 연주해 기술적으로 표현이 안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었으며, 율리와 악기의 톤에 집착하다 보니 무겁고 큰소리 때문에 음악이 거칠어져 표현에 방해 요인이 되기도 했다.

현악기는 음정과 표현법을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연주해야 하는 만큼 실수를 줄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탈락자들은 한번의 평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자신의 삶이 음악과 평생 함께한다는 넓은 안목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중주 김 연 주 초당대 교수

절제된 감정·깨끗한 테크닉 돋보였던 경연

참가팀들은 코로나19를 이겨낸 힘찬 연주를 선보였고 참가팀 전체가 암보로 연주해 훌륭한 경연을 펼쳤다.



중주에서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뤄 균형잡힌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서로 양보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합심해야 한다. 앙상블 음악이 갖는 특성에서 고음역은 클라이맥스나 긴장, 흥분을 만들어내고 중음역은 안정된 분위기를 표현한다. 또 저음역은 가라앉음과 깊은 사색을 나타낸다.

관악중주팀 중 플루트 이중주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절제된 감정과 깨끗한 테크닉이 돋보였으며 현악 팀들은 대체로 앙상블이 잘 돼 있었다. 특히 현악의 경우 템포가 약간씩 흔들리기도 했지만 연주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주를 충실히 한 덕에 지휘자 없이도 일사불란하게 정돈되고 자신감 넘치는 연주를 보여주었다. 중주와 현악앙상블은 중요한 프레이즈에서 함께 호흡하고 협동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레 이 영 애 전 광주무용협회장

기본기·테크닉 갖춘 초등부 꿈나무들 희망적

호남예술제는 지난 66년간 무용발전에 대두부 역할을 해왔다. 올해 발레 경연 수준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참가자의 수가 줄어들어 안타까움을 남겼다.



먼저 초등부 저학년은 전통작품이 큰 부담이며 적절치 않다고 여겨진다. 창작발레를 통해 기본기를 다지고, 발레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초등부 고학년은 가장 많은 수가 출전했는데 기본기와 테크닉을 동시에 갖춘 꿈나무들이 다수 있어 희망적이었다.

중등부는 발레리나에 적합한 체격조건과 에너지로 전통과 창작 등 모든 작품의 테크닉과 느낌을 잘 표현하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출전해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지만 고등부는 참가자 간 실력차가 커 아쉬움을 남겼다.

앞으로도 선배들이 이뤄냈던 발레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그날을 기대한다.

중창, 성악 고등부/초등부 3·4학년 박 미 애 광주대 교수

화음·율동 수준급…다양한 레퍼토리 선보여

코로나 19로 인해 참가자가 다소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많은 참가자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어 안도했다. 중창부는 여러 명이 화음과 율동을 동시에 선보여야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참가자들 모두 수준급인 화음을 들려줬고 표정, 연기, 율동도 예술적으로 잘 표현했다.



초등부 3,4학년은 전래동요, 창작동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아직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은 혀 짧은 발음으로 노래를 한 반면 성장이 빠른 학생들은 배로 호흡하며 소리를 잘 구사했다.

고등부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등장한 현델의 ‘Tornami a vagheggiar’를 많이 선곡해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그에 알맞은 곡을 선택해야 하는데 TV에 나온 고음과 기교가 필요한 곡을 불러 손해를 보기도 했다. 감염병으로 힘든 시기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경연에 출전한 학생들에 경의를 표한다.

피아노 중등부/초등부 1·2, 5·6학년 박 보 윤 호남신학대 교수

연주하는 곡, 자신의 음악으로 소화해야

호남예술제를 통해 아직 덜 깎인 보석같은 존재들의 연주를 들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접하고 배우는 것이 들렸으며, 또한 천차만별의 소질이 엿보였다. 학생의 고유한 음악성이 드러나는 연주,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해주었다.



예술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흉내나 연주자가 스스로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듯한 연주를 들을 때면 안타깝다. 배우는 곡을 자신의 음악으로 소화하며, 그것을 피아노를 통해 표현하는 만큼, 악기를 더 잘 알기 위해 연구하고, 무엇보다도 음악을 대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좋은 음악가로 자라나기를,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음악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한국무용 차 은 희 고구려대 교수

전통무용 기본에 더 충실해 주길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연에 앞서 격렬한 신체활동을 해야 하는 무용전공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연습이나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리라 하는 걱정이 있었다.



계다가 경연기간이 중간고사와 겹치는 바람에 참가팀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열정 가득한 학생 및 지도자들의 참여로 무사히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

현대는 다양한 장르의 무용이 혼합돼 독특한 개성으로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무용부문대회인 만큼 누가 보아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무용임을 알 수 있도록 안무 및 작품 활동에 있어서 한국 춤의 기본에 보다 충실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제대로 연습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된 기량으로 경연에 참가해 좋은 무대를 보여준 참가자와 지도자들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작문 박 성 천 소설가·광주일보 문화부 부장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잠재력 엿볼 수 있어

올해 작문 분야는 예년 수준의 응모 현황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고른 글쓰기 실력을 보였는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른들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다. 앞으로 세상의 주인공이 될 이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응모작 중에는 기발한 상상력이나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소재나 생각을 언어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어딘스러운 표현들도 눈에 띄었다. 구상한 골격을 생동감 있게 그리기 위해서는 묘사의 자연스러움, 적절한 어휘, 상황에 맞는 비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글을 다 쓰고 난 뒤에는 반드시 교정쓰기를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 일테면 원고지 쓰는 법을 비롯해 맞춤법, 부호 쓰기 등도 끝까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관악 이 현 주 군산대 교수

화려함보다 공명된 소리…기본기 연습 당부

호남을 대표하는 지역예술제의 명성에 걸 맞는 훌륭한 어린 예술인들의 연주를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감상했다.



특히 관악기의 특성상 코로나 19로 인한 제약이 더욱 많은데, 잘 견디고 본인의 기량을 연마한 학생들을 많이 칭찬하고 싶다.

연습 때보다 만족하지 못한 연주를 했다고 생각하거나 예상치 않았던 실수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 순간의 화려함보다 공명되고 자유로운소리, 다소 느리더라도 일정한 박자의 흐름, 끝을 또는 저음역대의 음정 등을 기본기를 좀더 갖추 수 있도록 연습을 하기를 당부한다.

다양한 시대 또는 전곡 악기 이외의 음악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단순히 악보를 잘 읽어내는 연주가 아닌, 관중에게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더없이 아 더 멋진 음악가들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아노 고등부/초등부 3·4학년 박 정 국 창신대 교수

시대적 특성에 맞는 곡 해석 좋은 연주로 연결

경연 참가 학생들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테크닉과 연주자가 갖추어야 할 음악적 감성을 겸비한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지정곡이 제시돼 개개인의 음악적 컬러를 드러내기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각 곡의 시대적 특성에 맞는 아카데미적이고 논리 정연한 해석과 개인이 생각하는 음악적 해석으로 좋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레슨 선생님들에게 지도받은 내용을 무대위에서 긴장하지 않고 모두 발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는 곡을 이해하는 능력, 낮은 무대에서의 침착함, 연주 테크닉, 프레이즈에 따른 호흡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결국 무대위에서 짧은 시간에 보여주어야 하는 콩쿨 무대에서의 매우 높은 긴장 상태에서도 흔들림 없이 연주될 수 있는 엄청난 연습량이 수반되어야 한다. 연주자가 곡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도 교사와 곡을 분석하고 공유해 좋은 테크닉을 겸비한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연주를 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

현대무용, 실용무용 여 순 심 광주여자대 교수

개인 창작부문 비해 군무팀 적어 아쉬워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제66회 호남예술제가 안전하게 진행되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창작무용 파트는 경쟁이 치열했다. 현대무용과 실용무용이 함께한 경연장은 경쟁의 열기로 가득했고 연습을 거듭한 시간 만큼 참가자들의 춤사위는 한폭의 그림 같은 선을 만들어 냈다.

참가자들은 운명에 감정을 실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한 작품의 색깔을 마음껏 표현했다.

많은 무용수들은 개인 창작부문에서 최고의 기량을 자랑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인 듯 이번 대회에서는 군무팀이 많이 줄어들어 이들의 열정적이고 박진감 있는 무대를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내년에는 많은 무용인들이 모든 부문에 참가해 축제 분위기 속에서 경연대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술 김 종 일 서양화가

순수한 시각, 독특한 표현, 화면 구성력 수준급

호남예술제는 호남미술의 산실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술을 사랑하고 꿈꾸는 많은 참가자들의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 찬사를 보낸다.



이번대회의 주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려동물’, ‘나무와 돌’이었다.

경연에서는 주제를 각자의 시각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사물을 바라보는 시점과 화면의 구성력 등의 수준이 월등히 높은 작품들도 볼 수 있었다.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독특한 표현들이 심사 내내 즐거움을 선사했고 재미난 구성력과 색상의 다양함에 있어서도 우열을 가르기 힘든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다만 몇 몇 작품에서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이 보여 다소 아쉬웠으며 아이들에겐 어른들의 계획에 의한 행동이나 말보다 더 구체적이고 진실한 표현이 미술적 감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



제66회 호남예술제 발레 부문 경연에 송원초등학교 2~6학년 학생들이 참가해 화려한 군무를 선보였다.